

Title	日韓会談反対運動と日韓教会交流：一九六〇年代を中心にして(韓国語)
Author(s)	高, 萬松
Citation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No.55 別冊, 2013.3 : 41-52
URL	http://serve.seigakuin-univ.ac.jp/refs/modules/xoonips/detail.php?item_id=5010
Rights	



聖学院学術情報発信システム：SERVE

SEigakuin Repository and academic archiVE

한일회담반대운동과 한일교회교류

— 1960 년대를 중심으로 —

고 만 송

들어가는 말

1945년 8월 이후, 한일의 사이에서는 최초의 기독교회의 교류가 있었다.⁽¹⁾ 일본의 기독교 학생들의 방한이었고, 교회로서의 활동으로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5년 후에, 양국교회의 화해의 문이 열렸다. 그것은 한일교회교류의 첫 열매로서 의미가 깊다 하겠다.

1960년대 전반, 한일이 당사자로서 가담한 것에 “양국의 기본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회담” 소위 한일회담이 있다. 1960년대에 그 회담에 관해 찬반의 양론이 격심했다. 6월에 정부간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 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한국 크리스천이 조약비준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거기에는 교파를 초월하여, 더우기 전국적으로 참가한 운동이 되었다. 본고는 거기에 주목해서, 한일양국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류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 고찰한다.

I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에서 종종 사용하는 말에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있다. 두 나라가 지리적, 공간적으로는 가깝지만, “이웃”의 관계까지는 성숙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1960년대 전반의 한일교회관계에 있어서도 통하는 말이 아닐까?

1) 한국의 정변에 대한 견해

먼저 “4.19 학생혁명”이다. 이것은 3월 15일에 있었던 정,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반정부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서울의 대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세력에 굴복하여 이승만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로 발전되었다.⁽²⁾ 이 사태를 일본의 기독교계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교단신보” (1960.5.7)는 “최근의 한국정세”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그 학생운동을 폭동사건으로 취급한다. 거기서는 “우리 나라[일본]와 가까운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어난 대 폭동사건은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4월 18일에 각 지방에서 발생한 반정부데모에는 약 10만명의 민중이 참가했다”라고 말한다.⁽³⁾ “해방후의 한반도의 정세는 모처럼 자유로 된 국가와 민족으로서는 감명받을 것이 별로 없다.”⁽⁴⁾ 일본의 크리스천이 한국에 대해서 “감명받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해방 15년후의 한국에 대한 집필자의 견해였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은 일본제국주의하에서 “해방된 때보다 더 큰 해방감 느끼고 있다고 전해진다”라는 표현은 한국을 오해하고 있는 말이다.⁽⁵⁾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1965년 8월의 “기독교공보”를 보면, 거기서는 “8.15의 새 각성”, “해방 20년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의 특별기사가 있다. 그 안에서 “해방”은 “20세기에 있어서 최대의 기쁨의 날”⁽⁶⁾이다. “교단신보”의 집필자의 역사관에는 냉정함이 결여되어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번의 폭동이 세계의 동정심을 모으고 있다”⁽⁷⁾고 말하고 있는데, 그도 한국에 대해 “동정”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논설은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 기독교인의 한 견해이지만, 일본에 대한 한국기독교인의 견해도 있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재일한국인을 북한에 송환하려고 한 것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반발이다. 거기에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다. 이 문제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려는 안을 일본정부가 1959년 2월 13일에 승인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기독교공보” (1959.3.2일자) 1면의 제목이 “교포복송을 교회도 반대한다”였다.⁽⁸⁾ 사설의 모두에는 “일본정부가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한다”라고 명언하고 있다.⁽⁹⁾ 이 당시 북한에는 2차대

전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거의 파괴되었고,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인 북한에 재일한국인을 송환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인은 일본의 조치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뢰회복을 위한 일본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즉 “일본교회는 방관하지 말라. 우리들은 일본교회가 인도와 정의의 편에 서서, 공산권에 자유민을 보내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다.⁽¹⁰⁾ 그러나, 일본기독교계에는 그러한 요망에 응답하는 분위기는 읽을 수 없다. 동년 9월 12일 “교단신보”는 “북조선귀환문제와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정치적 상황하에서 행해지는 이번의 북한 귀환이, 가능한 한 원만하게 문제가 적게 실시되는 것은, 일본의 크리스천들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했다.⁽¹¹⁾

아 물론, 당시 양국의 정치적 요소에 의해, 양국 교회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2) 희망만의 교회교류

“가깝고도 먼” 한일 교회교류이지만, 교류하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국의 기독교 신문이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양국교회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는 특징이 보인다.

먼저 일본 기독교신문의 내용을 보자. 4 19학생혁명에 관한 논설에는, “우리들은 이웃나라의 정세가 하루 속히 평정을 되찾아, 두 나라 사이에 있는 벽이 무너져, 두 나라의 국민이 자유롭게 교제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¹²⁾ 이렇게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점은 좋으나, 교류할 수 없었던 근본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1962년에는 한일 양국의 NCC가 교류를 추진하여,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이 방한했다. “일한양국교회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일한 쌍방이 시도를 해왔으나, 한국의 정변등의 사정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때가 1960년초였다”.⁽¹³⁾ 1960년과 1961년에 한국에 있었던 두 가지의 혁명으로 교류의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1962년에 마침내 일본으로부터 교회지도자들의 방한이 실현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기독교공보”는, “일본교회대표의 방한을 계기로”라는 제목의 논설을 싣고, 그들의 방한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논설은 양국 교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그 논설은 양국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자

세를 갖고 있으므로 상세히 고찰하자.

“역사와 지리적 모든 조건과 형편으로 세계 어느 국가와 민족보다도 가장 가깝고 우호적이어야 할 한일양국과 양민족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를 꿈꾼 망상적 침략행동으로 말미암아 역사상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라고 논설은 전제한다.⁽¹⁴⁾ 과거의 역사문제로 인하여 “민족적 감정은 좀처럼 내키지 않아 일본인과의 불쾌한 관계를 끊은지도 어언 20년 가까운 긴 세월이 지났다” 고 논자는 말한다.⁽¹⁵⁾ 이것이 전후 20여년간의 양국교회의 단절의 이유였다. 이 때 한국을 방문한 목사들은, 당시 일본 NCC 회장인 무토목사, 일본기독교단총회의장인 시라이목사, 그리고 고자키목사였다.⁽¹⁶⁾ 그들은 방한기간중에 “과거에 자기 민족과 정치인들이 범한 여러가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겸손한 태도를 나타냈다” 고 한다.⁽¹⁷⁾ 논자는 그와 같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 “아직도 침략행위를 합리화하고, 교활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과 비교해서, 논자 개인은 3인의 목사의 태도에 의해 지금까지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고백한다. 즉, “이 평화와 화목을 가장 절실하게 희구하면서도 이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양국간의 정치인들에게 우리 양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노력과 사랑의 활동이 효력을 나타내어 하루속히 국교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오늘 우리교회에 부과된 시대적인 사명의 하나가 아닌가?”.⁽¹⁸⁾ 한국의 기독교신문을 보는 한, 일본으로부터의 방한은 양국교회교류에 좋은 전례를 남겼다.

3) 상호관심의 대상으로서의 한일교회

1961년 5월 16일에 당시 박정희 육군소장의 지휘하에 3500명의 부대가 한강을 넘어 서울 중심부로 진격하여, 당시의 민주당정권을 넘어뜨렸다.⁽¹⁹⁾ 이것을 “5 16군사혁명” 이라고 부른다. 의미있는 일은 일본의 기독교신문에서 한국의 이러한 정변에 대해 “위기에 선 한국과 일본의 교회”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있는 점이다. 그 사설에는 “이번에 한국의 쿠데타는 우리들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인연이 있는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며, 또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기독교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만으로도 타인의 일이 아니더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한다.⁽²⁰⁾ 이어서 “또 우리들 일본인은, 특히 크리스천은, 이것을 타인의 일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고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집필자 스즈키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또는 “자국의 역사의 위기 가운데서, 한국의 교회가 지금 파수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²¹⁾

그런데, 마침 이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에, 한국에 체재중이었던 일본의 신학자 후루야 야스오가 귀국후,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이것은 일본의 신학자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고백한 맨 처음의 문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크리스천은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서 행했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은 일본의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전체 일본인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이 현재 [1960년대초] 고뇌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나라 [일본]가 과거에 범한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²²⁾ 이상과 같이, 당시 일본의 목사, 크리스천 신문, 잡지는 한국교회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II 한일회담과 크리스찬

1964년과 1965년은 한국에서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가장 심했다. 1965년 6월에 한일조약이 조인된 후, 한국의 크리스천은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기본조약 비준반대운동 (이하 비준반대운동으로 약기)을 전개했다.

1) 한일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였다

1965년이 되면 한일 양국의 크리스천은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문제의 근본이 “마음의 문제”라는 공통적인 인식에 도달한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유력한 잡지가 있었다. 한일회담과 관련된 몇 개의 기사 가운데서 한일양국간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제기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5년 6월호에 “한일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제목의 시평이 있다. 그 모두에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운 문제의 저류에는 무엇보다도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한다.⁽²³⁾ 일본에 대해 불신이라는 것은 옛 부터 있었던 국민 감정으로서 과거의 36년간의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민이 당했던 마음의 상처이며, 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일국교정상화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의 여론이 나빠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가 양국의 크리스천 사이에 있어서 해소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한일교회교류에 관여하고 있었던 한국인 목사는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한국인을 향해서 “동정”은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약하다고 정곡을 찌른다. 김관석목사는 1960년대 후반에 한국NCC의 총무가 되어 한일교회교류에 관여한 인물이지만, 그가 다음과 같이 일본의 크리스천을 향해 신랄히 비판할 때도 있었다.

우리들이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용서를 빌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국가와 사회의 악에 대해서도 불굴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속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또한 그들 나라가 아시아민족에게 범한 죄악이 어떠한가, 무엇으로 보상해서 그 죄악의 흔적을 씻어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기독교인은 값싼 동정은 표시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든가, 또 용서받은 자로서의 엄숙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²⁴⁾

김관석의 이러한 견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시 일본의 크리스천이 한국에 대해서 “동정”심을 발한 이유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오무라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의 크리스천도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⁵⁾ 또한 하타다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본인의 전통적인 조선인관에 있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⁶⁾

2) 한일회담 반대운동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1964년과 1965년에 가장 심했다. 1964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1964년 3월 6일에 야당 연합세력은 사회계, 종교계, 문화계등의 각계의 대표 지식인과 함께 대일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한일회담의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²⁷⁾ 3월 23일에는 서울의 대학생들이 “만족의 반역적인 한일회담의 즉시 중지”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²⁸⁾ 가장 심했던 것이 6월 3일의 반대운동이다. 이 때 약 1만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이전의 슬로건과는 다르게 “박 정권 타도”를 외쳤다. 결국 서울일대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은 이 당시 1964년 12월에 제 7차

회담이 개최된 후, 회담이 급속으로 발전되었다. 이듬해 1965년 6월 22일에 도쿄에서 정식조인되었다. 그 안에는 결코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²⁹⁾

3) 한일조약 비준반대운동

①크리스천 주도의 비준반대운동

1965년 6월 22일에 한일조약이 양 정부간에 조인되었으나, 한국교회는 비준반대운동으로 맞섰다. 반대집회는 “구국기도회”란 이름으로, 당시의 유력한 한경직목사가 목회한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교회는 당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한국장로교회의 중심이었으므로, “구국기도회”는 전국교회로 확산되기가 쉬었다. 일본의 기독교인은 한국교회의 이 비준반대운동을 처음에는 한국교회의 일부의 움직임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동참하여, 한국교회의 소리를 발신했다.

②비준반대의 논리

한국크리스천들의 비준반대 논리의 밑바닥에는,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이 있다. 상기의 “성명”에 기초해 보면,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대한 그들의 불만이다. 즉, 일본측의 “참회” 없는 조약에, 한국측이 조인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민은 일본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 그것은 한국민의 역사 운영에 있어서의 잘못으로부터 유래된 것도 있으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 가장 큰 것은 1910년의 한일합방이며, 한국민족말살정책이 한국민의 마음에 이 “원한”을 심었다라고 일본의 사토 수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³⁰⁾ 그리고 1965년 7월 11일에 채택된 “교직자 구국 위원회의 성명”은 다음과 같이 양국의 “화해”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진실한 화해의 정신에 의해 공통의 이익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 화해를 위해서는, 과거에 범한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를 형성하기 위한 선의에 기초한 봉사과 협력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¹⁾

제 2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약이 “굴욕적 외교”의 산물이라고 한

국 정부를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조약의 내용에 일본의 “신 식민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다. 한일조약의 내용으로부터 한국의 기독교인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강자가 약자를 취급하는 압력, 자국의 이권 수립을 위한 포석을 놓는 신식민정책의 노골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간파했습니다. 이 대로 비준이 강행된다면, 약 국민간의 친선 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적의가 격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단언한다.⁽³²⁾

제 3은 미래에 대한 우려이다. 이대로 조약이 비준된다면, “한국의 새 역사 건설에 과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민의 사이에 있어서도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여, 결국은 자유민주진영으로서의 양국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결과로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³³⁾

III 한일회담에 대한 교회의 상호인식

한국 기독교인에 의한 비준반대운동은 한일교회교류에 크게 기여했다. 그것은 양국교회에 “화해”를 가지고 오게 한 양자의 상호인식을 제공했다.

1) “마음의 문제”로서의 공통인식

한국과 일본사이에 가로놓인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규정한 한국측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술했다. 놀라운 것은 일본교회가 한국교회와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인 오무라목사가 1965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 다음과 같은 말은 한국기독교인의 인식과 일치하고 있다.

올해 [1965년] 봄 2월에, 대한기독교장로회 제 50회 총회에 초청을 받고, 일본기독교단으로서는 의장을 대표로 보낼 것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일조약이 성립되고, 그 비준 문제로, 한국에서, 특히 기독교회에서 반대운동이 강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은, 과거의 일본이 범한 잔혹한 정치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생각과 깊은 마음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³⁴⁾

그리고 한국의 현지에서 한국 크리스천들과 만난 체험을 설교에 반영한 오무

라는 이어서 한일관계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것은 그 근본이 실제로 이 문제입니다. 일본인이 한국인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문제입니다”.⁽³⁵⁾ 이렇게 오무라목사는 한일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정곡을 찔렀다.

2) 참회

한국의 기독교신문은 1965년 7월의 칼럼에서,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다고 하는 일본 정치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일본의 정치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우리들은 옛부터의 원한을 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본에 반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36년간 수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공헌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반성이 없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³⁶⁾

다시한번 오무라의 설교를 인용하자. 그는 1974년 8월 11일에, “[1945년] 8월 15일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전쟁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자각을 명확히 했다. 그 설교에 의하면, 오무라 자신도 일시적으로는 그와 같은 과오를 범했다고 회상하면서, 전쟁에 대한 일본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한다.

2차대전 이후에 여러가지의 관계로, 일본이 침략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 중에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 일본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일본인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 일본정부나 군국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피해자 의식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조국이 죄를 범했다. 이 전쟁에서 침략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가해자가 아닌가? 교회도 국가와 같이 가해자이다. 그러한 의식이, 저의 속에서, 정말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것을 지금에서야 통감하고 있습니다.⁽³⁷⁾

3) 한일교회교류

“복음과 세계”에 의하면, 당시 한국의 크리스천의 반대운동이 일본 크리스천에게는 쇼크였다.⁽³⁸⁾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한국 크리스천들의 비준반대운동에 영향받아, “처음으로 일본 크리스천은, 한국 크리스천의 의식과 문제를 알게 되었고,” 교류의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³⁹⁾

일본기독교단의 내부에서는 의장의 방한에 대해 100% 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방한의 시기가 적절한지, 또는 어떤 의도로 방한하였는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1965년 11월의 “공개질문장”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사죄했다는 의장의 발언은, 어떠한 역사적 반성에 서서 무엇을 의도하며, 지금은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해 오무라는 “일한 양국의 불행한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화해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믿으면서 행했다(마태 5:23, 24)”라고 답했다. 당시 일본교회의 지도자의 답변으로서, 양국교회의 화해에 대한 일본교회의 책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한국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앞에, 일본이 과거에 범한 정치적이면서 인권상의 죄악에 대해, 일본의 교회의 회개를 표명하고, 사죄를 표명했다. 이것은 일본교회가 갚아야 할 빛이라고 믿는다”라고 오무라는 답하고 있다. 여기서 오무라는 전쟁의 가해자로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오무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의 한일교회교류는 한국 크리스천의 부름에 대한 일본 기독교인의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신앙의 결단이 동반된 것이었다.

나가는 말

1965년에 있었던 교파를 초월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한일조약비준반대운동은, 한일교회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교역자 구국 위원회 성명”에 “크리스천으로서 역사 형성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⁴¹⁾ 그들은 일본의 과거에의 “회개”와 양국간의 “화해”가 기독교 신앙 위에서 수행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했다. 이런 한국교회의 요청에 호응해서, 일본의 교회가 “신앙의 결단”으로 응답하여, 양국교회는 “화해”하게 된 것이다.

- (1) 1960년 9월에 ‘전후 처음인 한국방문’이란 제목의 기사가, 일본기독교단의 기관지 『교단신보』에 게재되어 있다.
- (2) 文京洙 『韓国現代史』 岩波書店, 2010年, 93-96頁.

- (3) *Kyodan Times* (Tokyo: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7 May 1960), 3 (Hereafter *Japanese Christian Times*).
- (4) Ibid.
- (5) Ibid.
- (6) 『基督公報』 (1965・8・14), 1頁.
- (7) Ibid.
- (8) 『基督公報』 (1959・3・2), 1頁.
- (9) *Kidok Kongbo* (Seoul: Kidok Kongbosa, 2 Mar 1959), 1 (Hereafter, *Korean Christian Times*).
- (10) Ibid.
- (11) 『教団新報』 (1959・9・12), 1頁.
- (12) *Japanese Christian Times*, 7 May 1960, 3.
- (13) *Japanese Christian Times*, 3 Mar 1962, 3.
- (14) *Korean Christian Times*, 14 May 1962, 1.
- (15) Ibid.
- (16) 당시 무토는 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시라이는 일본기독교단 총회 의장, 고자키는 레이난자카교회 목사였다.
- (17) Ibid.
- (18) *Korean Christian Times*, 14 May 1962, 1.
- (19) Moon, op.cit., 100.
- (20) *Japanese Christian Times*, 3 June 1961, 1.
- (21) Ibid.
- (22) Yasuo Furuya, “Gunji Gakumeikano Kankoku Kyōkai [Korean Church under Military Revolution],” *Fukuinto Sekai* [Gospel and World] (Tokyo: Sinkyō, June 1961), 62.
- (23) “Hanil Munjenun Maumoei Munje [The Problem of Korea-Japan is based on the Heart],” *Kidokkyo Sasang* [The Thought of Christia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June 1965), 8.
- (24) Kan-Seok Kim, “Kyohoe Hanil Munje [The Church and Problem of Korea-Japan],” *Kidokkyo Sasang* [The Christian Thought]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June 1964), 5.
- (25) 大村勇 『大村勇説教集・輝く明けの明星』 日本基督教団阿佐ヶ谷教会, 1992年, 286頁.
- (26)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観』 勁草書房, 1977年, 98-101頁.
- (27) Lee, op.cit., 34.
- (28) Ibid., 190.
- (29) *Yomiuri Shimbun*, 26 May 2012.
- (30) *Korean Christian Times*, 7 Aug 1965, 2.
- (31) *Japanese Christian Times*, 18 Sep 1965, 4.

- (32) *Korean Christian Times*, 7 Aug 1965, 2.
- (33) Ibid.
- (34) *Japanese Christian Times*, 18 Sep 1965, 3.
- (35) Ibid.
- (36) *Korean Christian Times*, 17 July 1965, 1.
- (37) Ômura, op.cit., 286.
- (38) 「日韓友好への道——李仁夏牧師に聞く」, 『福音と世界』(1965年10月号), 新教出版社, 79頁。
- (39) Ibid., 83.
- (40) Ibid.
- (41) 『教団新報』(1965・9・18), 4頁。